東亞日報
發行兼編輯人 ...
印刷人 ...
發行所 東亞日報社
서울市中區太平路一街
代表電話 本局②一一八一
月定 ...

# 朝委 昨日上海向發
## 連絡班은留京業務繼續

朝委에서는 去十六日(日曜日)에 一部代表와事務局員이 上海로出發하였음은 이미 公報로써 發表된바이어니와 이에이어서 昨十八日에는 比律賓代表「루나」博士와 其他代表및事務局員의 殆半이 上海로出發하였으며 남은事務局員은 來金曜日과 日曜日에全部上海로 出發하게되리라한다 그리고 不在期間中은中國代表와 佛蘭西代表로써構成된 連絡班이德壽宮에서業務를 繼續할터이며中國代表로는 司徒德氏가남게되였다한다

委員團은 上海에서今秋巴里에서 開催되는「유·엔」總會에 提出할報告書作成을 完了한後六月五日頃에서울에돌아올것이며同報告書中에는 五月十日選擧에依하야 樹立되는中央政府의「유·엔」加入이 建議되리라한다

## 李承晩博士 佛領事와要談

國內政局은緊張한空氣를보이고있는데 李承晩博士는 지난十七日午前十一時半佛國領事의招請을받아 佛國領事館을訪問하고 佛國領事와 朝委佛國代表와長時間會談하고 諸般問題에關하야 意見을交換하였다한다

## 以北代表團 總會開催

越南四百六十餘萬의人組[illegible] 保障과 더불어새로樹立되는政府에 以北人을代表하야協調할것을 [illegible] 以北人代表團에서는 오는二十五日午後一時 獨促會講堂에서 代表團總會를開催하고 中央部署를選定하기로 되였다한다

# 南北協商挫折
## 金九氏靜養次麻谷寺로

金九, 金奎植兩氏를비롯한 中間派에서는 過去二個年間 全朝鮮을 蘇聯의衛星國化하려는 共產系列의意圖를 冷然하여왓음에도不拘하고 南北協商을推進하여오든바 最近에이르러서는 그들大部分이 南北協商의成功性이 稀薄함을 指摘하고 斷念하고있으며 다만 少數派側이 아직推進시키고있는 氣勢가보이든바 今番金九氏의急變한態度로因하여 南北協商은 드디어完全封鎖에陷入되고마렷다 即金九氏는猛烈히推進하여오든 南北協商을斷念하고 不日內로 忠南公州에있는 麻谷寺에 靜養次入山하리라는데 靜養期間은 數個月乃至二, 三年이될른지도 모른다고 한다 이리하여 金九氏는 當分間 政界에서 離脫할것으로보이며 따라서 南北協商도 如此한金九氏의態度로因하여 完全히挫折된것이며 다만 今後北朝鮮에殘留하고있는 人士들의 今後態度가 注目된다

## 英輿論調査
# 保守黨의人氣 勞働黨을凌駕

【스카-버러十八日發UP朝鮮】當地에서開催中인 勞働黨年次大會에서는 最近의輿論調査의結果가 主要한討議材料의 하나로되엿는데 即 이에依하면 保守黨의人氣는 勞働黨의人氣를 凌駕하고잇으며 四九%는 保守黨을支持하고 勞働黨은三八% 自由黨은十三%를 各各차지하고잇다

# 中國立法院長 孫科氏當選

【南京十八日發UP朝鮮】中國立法院長及副院長에 選任된 孫科, 陳立夫兩氏는 다가치 國民黨의 壓倒的優勢로서 選任되엿다 孫氏는 立法院長選擧에서 다른十八名候補의 總得票數九十에對하야 五百五十八票를獲得함으로서 得勝하엿다 陳氏는그의敵對者보다 百七票를더獲得하야 三百四十三票로서 當選하엿다 [illegible] 立法院長選擧는 [illegible] 其他候補者間에分配되엿고 午後에드러서는 그에對한國民黨內 進步派의 反對傾向에도不拘하고 陳立夫氏가 當選하엿다 UP記者가 選擧勝利에對한 感想을 打診한즉 陳氏는 너무기뻐서 말하지못하겟다고 말하엿다

# 윌氏和平計畫에 스타린首相同意

【런던十八日發UP朝鮮】今般모스코放送은 日前의「윌레스」氏의 公開狀에對한「스타린」首相의 回答을 發表하엿다 아래와가튼 「聲明內容을 發表하엿다「平和를强化하고 國際協調로 樹立할[illegible]

「윌레스」氏는 美國第三黨大統領候補「윌레스」氏의 公開狀은 가장重要한 文書라고 나는생각한다 「윌레스」氏의 公開狀은單純히 國際情勢를 改善하고 쏘美兩國의 差異를解決하고 國際紛爭을解決하는方途를 發見하려는 希望을 披瀝하는 것만으로 完全性과 考察할수업다 五月四日附美國政府의 聲明과 五月九日附쏘聯政府의回答은 事實에 잇어서 쏘美間의差異를解決하려는 希望을披瀝하는데 不過하다 今當公開狀에 表明에 만족치지안는 態度表明에만 그 [illegible] 具體的인 計劃을提示하며 平和的解決을 爲한 具體的인計劃을 提示하엿다 [illegible]

월레스氏의 公開狀은 모든 意見對立을이르키고있는 問題를 [illegible] 또는 公開中의 一般的이라고 完全히 無誤謬한것이라고는 할수업다 그러나 現在가장 重要한 것은 월레스氏가 公開狀에서 意見對立을 이르키고있는 모든 쏘美間의 基本的問題에 關하여 平和的 解決을爲한 具體的計劃과 提案을하려고 率直하고 正直하게試圖하고있는點이다 그提案은 周知하는바와가치 아래와가튼것이다 全般的軍縮及原子武器의 禁止 獨逸과日本에對한 講和條約締結 中國, 朝鮮等地로부터의 軍隊撤退問題 個別的인 國家의主權尊重及 內政不干涉 軍事基地不設, 何種의 差別업는 國際通商의 增進 民主々義의 防衛를 爲하여 苦痛을받는國家의 經濟再建, 各國內의 人權擁護等 월레스氏의 計劃에 對하여는 同意도할수도잇고 反對도할수있다 그러나 가지疑心할餘地가업는 것은 이는平和와 進步를爲한 人民들의 希望과 努力을 反映하는것이며 또한이가 無數의 一般民衆의 支持를 바드리라는것은 無疑의 事實인

「월레스」氏의 計劃이 쏘美兩國의協調가 이러한 時期에 있어서 [illegible] 諸國民間의 平和와協調를念願하는 政治家로써 이를 無視할수잇는者는 업다 쏘美間의 合意의 土台로써 美國政府가 「월레스」氏의 計劃을 支持하는지 與否는 쏘聯政府가 두體制間의 經濟的인 差異에도不拘하고 오로지 ! 的 差異에 不拘하고 쏘美間의 差異點의 平和的解決은 可能할뿐아니라 全般的인平和의 利益을爲하여 더말할것업시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이만치 쏘聯政府에 關한限 월레스氏의 計劃은 이斯한 合意의 國際協調의 增進을爲한 좋은土台가 될수잇는것이다」

# 蘇도猶太國承認

【런던十八日發UP朝鮮】蘇聯은 美國의 뒤를이어 新生「이스라엘」國家를 承認하엿다 蘇聯外相「비야체슬라브·몰로토프」氏는 猶太人臨時政府外相「모세·세르토크」氏에게 보낸 書翰中에서 蘇聯의 猶太國承認을 發表하엿다 한便「모스크바·라디오」는 「세르토크」外相이 猶太國 宣言 一日後에 同國承認을 要請한 書翰을 取한것이라고 蘇聯이 承認措置를 公表하엿다 이리하여 新生猶太國은 美, 蘇, 과레말라 三國의 承認을 받고있다

「英政府는 現民國의 「이스라엘」은 國家承認을 바랄만한條件을 具備하엿다고 生覺하지안는다 英國政府의 猶太國承認에 必要한 條件은 一, 國家機能을 開始한 政府의存在 二, 明確히制定된 國境 三, 國際的義務를 受諾하고 이를 遂行할 統治機關의 存在等이다 그러나 上記와가튼 條件의 實現은 아직까지 履行되지 안코잇다 設令 英國의承認條件이 美國의 그것과 相濟한다하드라도 英國의 猶太國承認問題에 對한 態度는 秋毫도先入觀 又는偏見의 影響을 받은것은 아니며 다만 法的考慮에 依하여 引渡될뿐이다

## 猶太承認條件不備
## 英代辯人聲明

【런던十八日發UP朝鮮】英外務省代辯人은 猶太國承認問題에關하여 다음과가튼 聲明을 發表하엿다

# 猶停戰斡旋應諾
## 國聯調委調停에猛活動

【에루살렘十八日發UP朝鮮】「스리언갱」團員들로 組織된 猶太人解放軍은 十五日아츰「에루살렘」城으로 殺到하여 자다리를노코 城壁을넘어 城內아라브家宅二戶를占領하엿다 한便 國際聯合停戰委員會 美, 佛, 白三國領事館員들과 萬國赤十字社員들은 아라브軍에 게 包圍當하고있는 聖市의 停戰을 手配하고 奔走하고있는데 危險한 狀態에 到하기爲하여 手配하고 奔走하고있는데 猶太人側은 停戰會談을 하기爲하여 停戰命令에 同意하엿으나 아라브側은 에 停戰의 承諾을 보기로하엿다 또는 「아브달라」王으로부터의 이제는「아브달라」王으로 十六日正午까지도「암만」에잇는 猶太人 協會는「에루사렘」을 中立 安全保障地帶로 하자는 萬國赤十字病院의 折衷 計劃案에 同意하엿스나 아라브軍指導者들은 全般問題를「라브람」王에게 回附 하엿다고 말하엿다「트란스요르단」國王「아브둘라」는「파레스티나」의 아라브正規軍及 義勇軍의 司令官으로서 그들의 位置에머 물면서 猶太軍이 以上進出을 企圖하지안는다는 條件下에「에루

살렘」停戰實施에 同意하엿던것이나 그의 同回答이 「에루자렘」에 잇는「하가나」猶太國防軍에게 傳達되는것이 느저 「하가나」軍은 猶太人들이 「비빈그라드」라고 브르는 市內地區를 攻擊占領하엿든것이다 同地區는「에루자렘」市內에서도 가장警備가 嚴重한 地區로서 英國政府官廳警察本部 裁判所 中央郵便局 政府病院等이잇다」

## 在日居留民連絡所 李博士와는無關

梨花莊秘書局및 朴烈氏는 十八日在日本朝鮮居留民團本國連絡所設置와 同團部署에는李博士는 何等의 關係가업다는要旨의 共同談話를 發表하엿다

## 人事

△李舜基長老(元本社咸興支局長) 去四月二十一日 三八以北 咸興自宅에서 別世

▲李英俊氏(東大門乙區當選人) 事次來社

▲崔國鉉氏(高陽郡乙區當選人) 事次來社



7

# ON UN COMMISSION CHAIRMAN'S STATEMENT

By Prof. Y. T. Pyun, University of Korea.

"In fact the efficiency was so remarkable that the figure of the voting reached a very high percentage in a few hours. This, in my mind, should give rise to a certain degree of caution and reservation in our appraisal of that efficiency." We wonder whether Mr. Mughir has ever witnessed an election held in Syria, his home country. Again we wonder whether such an efficiency as he witnessed here is a matter for suspicion in Syria. The fact is that we had been so impatient to vote for more than two years that everybody hastened to vote first, never suspecting that such alacrity would rouse a sense of "caution and reservation" in Mr. Mughir, who is, by the way, too honest and conscientious not to insert the confessing phrase, "in my mind".

"It (Commission) has not yet committed itself to advise the elected representatives to immediately establish a national government. It is our hope that these representatives make all efforts before forming a government to get the support of those elements which opposed the elections, in order to achieve unity for Korea."

By virtue of the election, we are a nation already endued with full sovereignty that brooks no delay in manifesting itself in a concrete form, a government. Any advice should be quick in coming in order to be in time. No more dilly-dallying! All the American efforts for two and a half years failed. All the efforts of the United Nations failed. All the efforts of the 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including the honorable Mr. Mughir, failed. After these resounding failures, does Mr. Mughir sincerely believe that the governmentless representatives whose legality their opponents, the wilful breakers of union, do not even recognize can ever achieve unification by making "all efforts"? We ourselves cannot believe it, unless we turn dupes or unbelievably conceited. Mr. Mughir might as well ask us just to give the soviets, say, six months more time.

One common conviction actuated both UN and us, that a national government established and recognized by peace-loving democracies will be the only effective way to unify the sundered nation. Any informed person, however slightly, should know this much. Urging more delay simply makes no sense. Our efforts for unification will be truly fruitful only when we have a national government, not before. The very establishment of it will furnish our right-minded brethren in the Soviet zone with a rallying point, something to turn to for succour, something to fight for. Honestly we cannot afford any more procrastination. A day's delay in setting up our government is a day lost for our unity. Therefore we must say we are sorry not to be able to satisfy Mr. Mughir's hope.